

공동체 소식



## 대림 제4주일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비천한 종들을 뽑으시어,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니, 성령의 풍요로운 은총으로,  
교회가 동정 마리아를 본받아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원하고 거룩한 겨레의 어머니로서 언제나 기뻐하게 하소서.

12월 기도지향

- 정준구 파비아노, 박해정 카타리나 가정
- 고영방 스테파노, 김명은 안젤라 가정

대림시기

대림은 전례주년의 시작이며,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구세주이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회개와 속죄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성탄 대축일 전례 안내

- 구유 예절 및 성탄 밤미사 : 12/24(수) 오후 7:30(어린이 전체 복사)
- 성탄 대축일 미사 : 12/25(목) 오전 11시
- 구유 예물은 과테말라 현지 San Miguel Escobar 본당 선교를 위해 봉헌됩니다.

성탄맞이 9일 기도

- 기간 : 12/15(월) ~ 12/23(화)
- 내용 : 각 가정 별로 묵주기도 5단, 혹은 형편대로

자원봉사 국가 인증서(The President Volunteer Service Award)

오늘 중심미사 후,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성가대 활동은 성가대장님이, 복사 시간 관리는 전례부장님이 관리/감독하겠습니다.

기타

- 12/23(화) 저녁미사는 성탄 전례로 인해 없습니다.
- 판공성사 및 구역미사에 함께 해 주신 형제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매일미사’ 책 신청 받습니다. 배송료 포함, 1년 구독료 60불입니다.
- 성탄 대축일 맞이 ‘꽃 봉헌’ 전례부에서 받습니다.
- 오늘(12/21) 중심미사 후, 본당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송년회가 있습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92	513	174/170	90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정병훈 보니파시오 문석찬 요셉	차서는 세라피나 문예나 요안나
차주	정수한 베드로 정병훈 보니파시오	문호진 안토니오 고평원 프란치스코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박해정 카타리나	윤진호 스테파노 이현주 베네딕다
차주	최은미 아네스	문석찬 요셉 백문주 엘리사벳

애찬 봉사자

금주	김경돌, 박정자, 양정희, 한순례
차주	김시연, 신혜경, 김말자

헌금 봉사자

금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요한
차주	백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12/14	80명	493불	1210불
감영진, 김호원, 이현주, 한봉경, 양경직, 김태중, 차호섭(총 7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만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홍순의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오늘은 대림 시기의 마지막 주일인 대림 제4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림 시기에 구세주께서 2000여 년 전에 오셨음을 기억할 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오심을 기뻐하며 또한 앞으로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을 간직합니다. 세상은 어둡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에 대한 희망으로 불타오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합당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봅시다.

### 그림 묵상

#### 하느님의 거처가 되신 마리아

오늘 전례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가난한 시골 나자렛 마을의 마리아는 천사의 예고에 놀라워하면서도 하느님 뜻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이로써 마리아 안에 하느님 아드님의 거처가 마련되었습니다. 하느님의 계획에 아름답고 용기 있게 응답한 마리아를 우리 신앙 여정의 모범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서 : 2사무7,1-5.8ㄷ-12.14ㄱ.16 < 다윗의 나라는 주님 앞에서 영원할 것이다. >



하느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 하리라

- 하느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입으로 그 진실하심을 대대에 전하리라. 영원한 사랑을 이룩했노라 하시며 주님께서서는 진실하심을 하늘에 굳히셨나이다. ◎
- 나는 내가 뽑은 자와 계약을 맺고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 길이 네 후손을 굳건히 하여 대대로 네 왕좌를 튼튼히 하리라 하셨나이다. ◎
- 그는 나를 향하여 당신께서는 저의 아버지 저의 하느님 제 생명의 바위라 하리라. 은총을 영원토록 그에게 내리리니 그에게는 내 계약이 굳게 남아 있으리라. ◎

제 2 독서 : 로마16,25-27  
< 오랜 세월 감추어 두셨던 신비가 이제는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복 음 : 루카1,26-38 <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

# 쉐 마

## “새로운 시작”



복음서에서 예수님 탄생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마태오와 루카입니다. 마태오 복음은 동방박사의 등장과 함께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루카는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시절에 대해 가장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복음서입니다. 마리아의 잉태 예고와 엘리사벳과의 만남, 그리고 호적 등록을 위해 베들레헴에 가야만 했던 이야기와 머무를 곳이 없어 동물들이 머물던 곳에서 아기를 낳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극처럼 전개되는 마태오와 루카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와는 달리 요한 복음은 아주 짧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요한 1,14).

말씀은 하느님이셨고, 하느님과 함께 있었으며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요한 복음의 내용은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하게 표현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아드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을 만들 때까지 하셨습니다”(히브 1,2). 이제 그 말씀이, 하느님의 아드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아니 오셨습니다. 이제 신앙인들은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처럼 주님을 직접 볼 수 있게 된 것이고, 폐허 속에서도, 곧 절망 속에서도 기뻐하고 환성을 올릴 수 있는 사건입니다. 사람이 되어 오신 것. 예수님의 육화는 우리가 인간의 방식으로 하느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질 수 있도록,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면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서 함께 사셨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빛의 축제입니다. 사람들은 빛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합니다. 대림 시기부터 초를 밝히고 별의 인도로,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요한 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이 빛은 사람들에

의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요한 복음은 이 기쁜 일을,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구원의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호소합니다.

우리는 매년 성탄을 준비하고 기억합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금 되새겨 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는 예수님의 탄생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특별히 연말의 분위기와 함께 한 해를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오히려 부활 대축일보다 더 많은 이들이 성당을 찾고 새로운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성탄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동안 신앙 안에서 부족하거나 소홀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말로서만이 아니라 삶 안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지 축하 인사를 나누는 즐거운 축제를 넘어 진심으로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구원을 선사하시는 하느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고 또 그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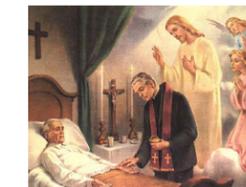
- 서울대교구 허규 신부 -



# 주춧돌

## 제 2 편 은총의 생인 성사와 기도

### 제5장 병자성사



**여러분 가운데에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아고 5,14-15).**

#### 【설명】

▶ 병자성사(病者聖事)란 무엇인가? 하느님은 치유하시는 주님이시다(탈출 15,26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선포하시고 앓는 이들을 고쳐주셨다. 가톨릭교회는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에서 그리스도께서 병자성사를 제정하셨음을 선언하였다. 신자가 중병에 걸리거나, 대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또는 노환으로 오랫동안 병석에 있을 때, 신자는 사제를 청하여 병자성사를 받는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셨듯이, 오늘날도 예수님께서서는 사제들의 병자성사 집전을 통하여 병자들을 위로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신다. 병자성사는 일곱 성사 중에 특별히 병으로 고통당하거나 임종을 앞둔 신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성사다.

▶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을 잘 듣고,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며,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정을 지키면, 이집트인들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낮게 하는 주님이시다(탈출 15, 26).

#### 【교회의 가르침】

▶ 병자나 죽을 위험이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성사를 함께 받기를 원하는 경우, 사제는 고해성사와 임종 전면 은사(전대사), 견진성사, 혼인성사, 병자성사 및 노자 영성체의 순서로 집전한다(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 98조).

▶ 병자성사는 “생명이 위급한 지경에 놓인 사람들만을 위한 성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 성사를 받는 적절한 시기는 이미 신자가 질병이나 노쇠로 죽을 위험이 엿보이는 때로 여겨진다”(가톨릭교회교리서, 1514항).

- 『신앙생활 보감』,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3 -

#### 【성탄 대축일 전례】

##### ☞ 대축일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밤미사 (12/24)	전체 복사	
대축일 (12/25)	정수한 베드로	정예찬 미카엘
	이우영 가브리엘	이원준 요한

##### ☞ 전례 봉사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밤미사	최은미 아네스	정준구 파비아노 박혜정 카타리나
대축일	김주연 세실리아	홍순익 마르티노 최은미 아네스